

# 룻기

## [룻과 나오미]

1 **1** <sup>㉠</sup>영웅들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에 나라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 1  
다. 그 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모압 시골에 가서 목불 2  
여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다. ◦그 사람의 이름은 2  
엘리멜렉이며 아내는 나오미, 두 아들은 마흘론과 길론이었는데, 그들은 3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 에브랏 집안 사람들이었다. 모압 시골에 가서 4  
얼마 동안 지내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3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 뒤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 4  
하나는 오르바요, 다른 하나는 룻이었다. 거기에서 십 년쯤 살다가, ◦마흐 5  
론과 길론 두 사람도 세상을 떠났다. 이리하여, 나오미는 남편을 여윈데다 6  
두 아들마저 잃고 말았다. ◦그 무렵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어 6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모압 시골에 들려 왔다.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7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시골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 가기로 하였다. ◦나 7  
오미는 두 며느리를 거느리고 살던 고장을 떠나 유다 지방을 향하여 길을 8  
떠나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 친정으로 돌아들 가라고 하며 이렇게 8  
말했다. “너희가 죽은 내 아들들과 나에게 그토록 고맙게 해 주었으니, 9  
야훼께서도 것처럼 너희를 보살펴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 둘 다 새 남 9  
편을 맞아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게 해 주시겠지.” 그리고는 두 며느리를 10  
끌어 안자 두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안 됩니다. 저희는 10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 겨레의 품으로 돌아 가겠습니다.” ◦“너희는 돌아 11  
가야 한다, 애들아. 어찌자고 나를 따라 가겠다고 하느냐?” 하며 나오미는 11  
며느리들을 타일렀다.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자식이라도 있는 줄 12  
아느냐? ◦악아, 어서 돌아들 가거라. 나는 이렇게 늙어 이젠 재혼할 수도 12

<sup>㉠</sup>구교에서는 ‘판관’, 신교에서는 ‘사사’라고 불러 왔음

없는 몸이다. 나에게 무슨 희망이 더 있겠느냐? 오늘 밤에라도 내가 남편을 맞아 자식을 낳는다 하자. ◦그것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야 없지 않겠느냐? 그걸 바라고 재혼도 하지 않고 어떻게 지낼 작정이냐? 악아, 그건 안 될 말이다. 제발 나를 더 괴롭히지 말아 다오. 나는 이처럼 야훼께 얻어 맞은 신세란다.”

14 ¶ 그들은 다시 소리내어 울었다. 그리고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껴안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자기 겨례에게로 돌아 갔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15 ¶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네 동서는 제 겨례와 제 신에게  
16 돌아 갔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 가거라.” ◦“저에게 어머니를 버려 두고 혼자 돌아 가라고 너무 성화하시지 마십시오.” 하며 룻이 말했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겠으며,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겨례가 제 겨례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17 어머님이 눈 감으시는 곳에서 저도 눈을 감고  
어머님 곁에 같이 묻히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죽음밖에는 아무도 저를 어머님에게서 떼어 내지 못합니다.”

18 이토록 끝내 따라 나서겠다고 버티자 나오미는 더 할 말이 없었다.

19 ¶ 그리하여 둘은 길을 떠나 마침내 베들레헴에 다다랐다.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들어 서는 것을 보고 아낙네들은 “이 사람이 나오미 아니야?”  
20 하며 떠들썩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말아요. ㉠사따이신께서 나에게 쓰라림을 가득 안겨

㉠전능하신 이

주셨다오. 그러니 나를 <sup>㉠</sup>마라라고나 불러 주세요.

떠날 때는 아쉬운 것 하나 없었건만, 21

야훼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돌아 오게 하셨다오.

그런데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시오?

야훼께서는 나의 허물을 들추어 내셨다오.

사따이신께서는 이렇듯이 나에게 불행을 안겨 주셨다오.”

¶ 이렇게 나옴이는 모압 시골을 떠나 모압 사람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22  
돌아 온 것이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보리를 거둬 들일 무렵  
이었다.

#### [룻이 밭에서 보아즈를 만나다]

**2** ¶ 나옴이는 남편 쪽으로 친척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의 1  
일가로서 유력한 재산가였는데 이름은 보아즈라 했다.

¶ 하루는 모압 여자 룻이 나옴이에게 청했다. “저를 밭에 나가게 해 2  
주세요. 행여 무던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그의 뒤를 따르며 이삭이라도  
주워 오고 싶어요.” 나옴이가 룻에게 허락을 내렸다. ◦룻이 밭에 나가 3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줍는데, 공교롭게도 그 밭은 엘리  
멜렉의 일가인 보아즈의 것이었다. ◦때마침 보아즈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4  
“야훼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하며 추수하는 일꾼들  
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야훼께 복을 받으십시오.” 하고 일꾼들이 대  
답했다. ◦보아즈는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한 머슴에게 물었다. “저 5  
젊은 여자는 뉘 댁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던 머슴이 대답했다. “저 젊은 6  
여자는 나옴이가 함께 모압 시골에서 돌아 온 모압 여자입니다. ◦일꾼들 7  
이 거두면서 흘린 이삭을 뒤따르며 줍게 해 달라고 사정하더군요.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앉지도 않고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sup>㉠</sup>‘나의 귀염둥이’(나옴이)에서 ‘쓰라림’(마라)으로 이름이 바뀐다

8 ¶ 보아즈가 룻에게 말했다. “악아, 내 말이 들리지? 다른 사람 밭에는  
이삭을 주우려 갈 것 없다. 여기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우리 집 아낙네들  
9 과 어울려 다녀라. ◦추수하고 있는 밭에서 한눈 팔지 말고 이 아낙네들의  
뒤를 따르며 이삭을 주워라. 머슴들이 너를 성가시게 못하도록 분명히  
일러 두마. 목이 마르거든 머슴들이 항아리에 길어다 둔 물이 있으니,  
10 가서 마셔라.” ◦그러자 룻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까지 귀엽게 보아 주시고 마음을 써 주십니까? 저는 한낱 이국 여  
11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아즈가 말했다. “나는 다 들었다. 네가 남편  
이 세상을 뜬 뒤에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었고 고향을 버리고 부모를  
12 떠나 낯선 이 백성에게로 왔다는 말을 들었다. ◦네가 그렇게도 가룩하게  
행하였는데, 어찌 야훼께서 갚아 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하  
느님 야훼의 날개 아래로 안식처를 찾아 왔으니, 너에게 넉넉하게 갚아  
13 주실 것이다.” ◦룻은 “부디 저를 귀엽게 보아 주십시오. 저는 덕의 여느  
여종만도 못한 몸인데도 이렇게 다정스런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는군요.”  
하며 고마와했다.

14 ¶ 식사 때가 되어 보아즈가 룻에게 권했다. “이리 와 빵을 떼어 이  
시큼한 술에 찍어 먹어라.” 그리하여 룻은 추수하는 일꾼들 옆에 앉았다.  
15 보아즈는 룻에게 밀청대를 배불리 먹고도 남은 만큼 집어 주었다.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서는데, 보아즈가 머슴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가 보릿단 사이로 돌아 다니며 이삭을 줍더라도 나무라지 말라.  
16 ◦숫제 보릿단에서 이삭을 빼내어 흘려 주어라. 그리고 그것을 줍더라도  
17 야단치지 말라.” ◦룻이 저녁 때까지 주운 이삭을 털어 보니 보리가 한 에바  
18 나 되었다. ◦룻은 그것을 메고 마을로 돌아가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나서,  
19 배불리 먹고 남겨 온 음식도 꺼내 드렸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오늘 어  
디에서 이삭을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에게 이렇게도 마음을  
써 주신 그분이 복을 받지 못하면 누가 받겠느냐?” 룻이 “오늘 제가 이삭을

주운 밭 주인은 보아즈라고 하더군요.” 하며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이삭을 주웠는지를 시어머니에게 밝히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그분은 산 사람에게나 죽은 사람에게나 한결같이 고맙게 대하시는구나. 그분이 야훼께 복받지 못하면, 누가 복을 받겠느냐? 그분은 우리와는 가까운 일가이다. 우리를 떠맡아 줄 사람 가운데 한 분이다.” ㉠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아즈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기네 집 아낙네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도록 하였다고 말하니 ◦나오미는 “악아, 네가 그 댁 아낙네들과 함께 일하러 나가게 되었다니, 참 잘 되었다. 다른 밭에 갔다가 남자들에게 욕을 당할 염려가 없게 되었구나.” 하고 며느리에게 말했다.

㉡ 이리하여 룻은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즈 집안의 아낙네들과 어울려 다니며 이삭을 주워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다.

#### [밤을 타서 보아즈와 가까워지다]

3 ㉢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악아, 이젠 너도 행복을 누리며 살 보금자리가 있어야겠구나. 내가 그것을 마련해 주마. 그렇지 않느냐? ◦너는 보아즈 댁 아낙네들과 어울려 지냈지만 그분은 너도 알다시피 우리와는 친척이다. 바로 오늘 밤 그분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른 다음 장옷을 입고 그 댁 타작 마당에 내려 가 보아라. 그분이 저녁 식사를 마치기까지는 눈치채이지 않도록 하여라. ◦그분이 잠자리에 들거든 그 잠자리를 잘 알아 두었다가 살그머니 가서 그 발치끼를 들치고, 거기 누워라. 그 다음에 네가 할 일은 그분이 일러 줄 것이다.”

㉣ “어머님 말씀대로 어김없이 하겠습니다.” 룻은 이렇게 대답하고, ◦타작 마당으로 내려 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였다. ◦보아즈는 먹고 마시고 나서 흐뭇한 마음으로 보리가리 옆에 가서 누웠다. ◦보아즈는 한 밤중에 한기를 느껴 몸을 웅크리다가 발치끼에 웬 여자가 누워 있는 것을

㉠레위기 25:23-28; 신명기 25:5-10을 보라

- 9 알고 ○“너는 웬 여자냐?” 하고 물었다. “비녀는 룻입니다.” 하고 룻이 대답했다. “어르신네께서는 이 몸을 맡아 주실 분이십니다. 그 옷자락으로  
 10 저의 몸을 덮어 주십시오.” ○“악아, 야훼께 복을 받아라.” 하고 보아즈는 말했다. “너는 돈이 있든 없든 젊은 사람을 따라 감직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까지 효성을 다하니, 이것은 지난날의 효성보다도 더 가룩하구나.  
 11 ○악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들어 주마. 네가 굳센 여자라는 것은 이 성 안에 사는 내 겨레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  
 12 ○너를 맡아 줄 의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너한테는 나보다 더  
 13 가까운 친척이 또 있다. ○이 밤은 여기서 지내거라. 내일 아침에 그가 너를 맡겠다고 나서면, 좋다, 그가 너를 맡을 것이다. 만일 그가 싫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맡아 주겠다. 날이 썰 때까지 여기에서 쉬어라.”  
 14 ○이리하여 룻은 날이 새기까지 그의 발치곤훤 누워 있다가, 여자가 타작 마당에 왔었다는 것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보아즈의 말을 따라 서로  
 15 얼굴을 알아 볼 수 있게 되기 전에 일어났다. ○보아즈는 룻이 쓰고 있는 장옷을 벌리라고 한 다음 룻이 장옷을 벌리자 보리 여섯 뒷박을 퍼 담아 지  
 16 워 주었다. 룻이 마을로 돌아 와, ○시어머니에게로 오자 시어머니는 어찌 되었느냐고 물었다. 룻은 그가 자기에게 해 준 일을 다 고했다. ○“시어머니께 빈손으로 돌아 가셔야 되겠느냐고 하시면서 보리를 여섯 뒷박이나  
 17 주시더군요.” ○이 말을 듣고 나오미는 “그 분이 오늘 안으로 이 일을 결말 짓지 않고는 못 견딜 것이다.” 하면서 일이 어떻게 되는가 기다려 보라고 하였다.

#### [룻이 보아즈와 결혼하다]

- 1 **4** ¶ 보아즈가 성문곤훤 올라 가 앉아 있는데, 마침 자기가 말하던 그  
 친척이 지나갔다. “여보게, 이리로 와서 앉게나.” 하며 보아즈가 그를  
 2 부르자, 그가 발길을 돌려 와서 앉았다. ○보아즈는 마을 장로들 가운데서 열 사람을 불러, “이리 와서 앉으십시오.” 하고 자리를 권하였다. 그들이

자리를 잡자, ◦보아즈가 그 친척에게 말했다. “우리의 동기 엘리멜렉의 소 3  
유지가 있지 않소?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 시골에서 돌아 와서 그 땅 권리를  
팔려고 내놓았소. ◦이 소식을 당신에게 알려 두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4  
말이지만, 여기 앉아 있는 분들과 내 겨레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사시오. ①그 땅을 도로 사서 가질 생각이 있으면 도로 사서 가지시구료.  
그럴 생각이 없으면 그렇다고 말해 주시오. 내가 알아야겠소. 그것을 도로  
사서 가질 사람은 당신밖에 없소. 당신 다음은 나인가 하오.” “내가 도로  
사서 가지겠소.” 하고 그가 대답하자, ◦보아즈가 다짐하였다. “나오미에 5  
게서 밭을 넘겨 받는 날 당신은 고인의 아내 모압 여자 룻도 떠맡아야 하오.  
그리하여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의 유산을 차지할 사람을 낳아 주어야 하  
오.” ◦그러자 그 친척은 “그랬다가는 내 재산만 손해를 보게 되겠군. 그럴 6  
수는 없소.” 하면서 그 땅을 도로 사서 갖지 않겠다고 하였다. “내가 사서  
가질 것이지만, 당신이나 사서 가지시구료. 나는 그럴 마음이 없소.”

㉑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유산을 도로 사서 가지는 의무를 남에게 넘겨 7  
줄 경우에는 신 한 짝을 벗어나서 상대방에게 주는 습관이 있었다. 그것을  
증거물로 삼고 매듭을 지었던 것이다. ◦그 친척도 “당신이 차지하시오.” 8  
하면서 신 한 짝을 벗어 보아즈에게 주었다. ◦그러자 보아즈는 장로들과 9  
온 겨레에게 말했다. “나는 엘리멜렉과 길론과 마흘론에게 팔렸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샀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또 10  
나는 마흘론의 아내 모압 여자 룻까지도 유산과 함께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유산을 차지할 사람을 낳아 주어서  
고인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남아 이 고장 성문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성문께 있던 11  
온 백성이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장로들이 말했다. “야훼께서  
그대 집에 들어 오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가문을 일으킨 두 여인

①그 땅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가 있음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 주시기를 기원한다. 그대가 에브라다에서 권세를  
 12 떨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휘날리기를 빌며, ◦또한 야훼께서 이 젊은  
 여인의 몸에서 후손을 일으키시어 그대의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  
 준 베레스의 집안같이 되기를 기원한다.”

13 ¶ 이렇게 보아즈는 룻을 맞아 아내로 삼고 한 자리에 들었다. 야훼  
 14 께서 점지해 주셔서 룻이 아들을 낳자,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축하하여  
 말했다. “오늘 이처럼 당신 가문이 대를 이어 내려 가게 해 주셨으니 야훼  
 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이 아기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기림을 받게 되  
 15 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며느리가 낳아 준 아들,  
 아들 일곱보다 더한 며느리가 낳아 준 아들이니, 이제 그가 당신에게 살  
 16 맛을 되돌려 주고 노후를 공양해 줄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아기를 받아  
 17 품에 안고 자기 자식으로 길렀다. ◦이웃 아낙네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구나!” 하며 그 아기에게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요 이새의 아버지였다.

### [다윗의 계보]

18 ¶ 베레스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19 람을, 람은 암미나답을,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나흐손은 살몬을, ◦살몬은  
 20 보아즈를, 보아즈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21  
 22



# 조판에 관한 노트

## 1 개요

『공동번역 성서』(CTBK)는 1977년에 교회일치운동의 일환으로 신·구교 신학자가 협력하여 번역·출판되었고, 1999년에 개정판(CTBR)이 나왔다. 한때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성공회와 정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다. (무언가 깊은 뜻이 있어 현실 교회에서 이 판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이 훌륭한 성경 번역본이 거의 사장되어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유감이다.)

내가 가진 책은 1977년 6월 20일에 인쇄된 제3판(초판은 같은 해 4월 20일 부활절이었다)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공동번역 성서의 조판을 재현해보고자 하였다. 구약「룻기」를 가지고 시도해보았는데, 분량도 적고 조판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대부분 갖추어져 있다고 보였기 때문이다.

## 2 조판 요소

### 2.1 입력 텍스트

공동번역 텍스트는 어찌어찌 구할 수 있었다. 나중에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입력 오류가 제법 있고 성서 본문의 형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구약의 경우) 보주(본문의 하단에 배치한 주석)를 완전히 빼먹은 데다가 공동번역의 특징 중 하나인 단락 타이틀이 제거된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일단 본문을 모두 입력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어서 이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 입력 텍스트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Gen 1:1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

권(Book)의 이름과 장절 번호가 모든 절(verse)마다 붙어 있고 한 절은 한 행(line)으로 입력되어 있다.

모든 절은 반드시 [영문자 3개] [스페이스] [숫자] [:콜론] [숫자] [스페이스]로 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절이 중간에 나누어져 있으면 안 된다. 다만 강제로 개행하려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입력 텍스트에 빈 줄이 있어서는 안 된다.

## 2.2 입력 텍스트의 수정

**장절 표시의 수정** 우선, 보주에서 성서의 다른 곳을 언급할 때 장절로 표시되는 부분과의 구별을 위해서, 각 절 시작 부분의 장절 표시를 “1:1” 형태에서 “1;1” 꼴로 콜론을 세미콜론으로 일괄 변환한다. 행 첫부분에 있는 것만 변환해야 하는 데 주의하였다.

**단락 표제와 문단 시작 표지의 추가**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공동번역의 특징인) 단락 표제를 추가하였다.

Gen 1;1 [천지창조]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내가 구한 공동번역 텍스트 파일의 신약 부분의 단락 타이틀이 위와 같은 형식으로 입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 부호에 대응하는 별표(\*)를 해당 위치에 부여하였다.

Gen 1;1 [천지창조] \*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여기까지 하면 다음처럼 출력되게 되었다.

[천지창조]

1 ¶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땅은 아직 모<sup>1</sup><sub>2</sub> 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 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보주의 입력과 처리** 주석을 위하여 < > 부호를 쓰도록 하였다. 닫는 부호 > 다음에 스페이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Gen 1;1 [천지창조] \*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시던 한<sup>↔</sup> 처음이었다''라고 옮길 수도 있음>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sup>↔</sup> 땅을 지어 내셨다.

주석은 페이지의 하단에 위치한다.

[천지창조]

1 ¶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 ◦땅은 아직 모<sup>1</sup><sub>2</sub> 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 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외래어 표기** 고유명사를 포함하여 외래어를 고딕체로 표시하는 것이 공동번역 성서의 특징이다. 예전 『개역한글판 성경』은 인명에 줄 하나, 지명에 줄 두 개를 그어 구분하였다. 개역 성경은 ‘인명’이나 ‘지명’이냐가 기준이고, 신명(神名)은 고유명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 예컨대 ‘여호와’나 ‘예수’가 그러하다. 그러나 공동번역 성서는 그 단어가 “외래어인가”가 표시 기준이다. 따라서 ‘야훼’, ‘예수’를 모두 고딕체로 표현한다. 인명이나 지명이 아닌 외래어도 마찬가지이다.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시던 한 처음이었다”라고 옮길 수도 있음 ㉡“바람”, “영”, “혼”, “열”이라고도 옮길 수도 있음

입력 텍스트에서 외래어에 해당하는 어구를 /\*, \*/로 표시하게 하였다.

Gen 4; 3 때가 되어 /\*카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야훼\*/께  
예물로 드렸고  
Gen 4; 4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말배의 기름기를 드렸다.

#### [카인이 아벨을 죽이다]

- <sup>1</sup> ¶ 아담이 아내와 한자리에 들었더니 아내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sup>2</sup> **4** 이렇게 외쳤다. “야훼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와는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카인은  
<sup>3</sup>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때가 되어 카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야훼께  
<sup>4</sup>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말배의 기름기를 드렸다.

외래어 마크업하는 것은 (편집기의 바꾸기 기능을 이용했지만) 매우 지루하였다. 입력 텍스트에 이런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 절의 조판

하나의 절(verse)은 새로운 문단을 이루지 않는다. 그 대신 절의 번호를 여백에 표시하고 절의 시작 위치에 ◦ 부호를 두는데, 다만 이 자리에 문단 시작 부호가 있거나 운문이면 생략한다.

절의 번호는 홀수쪽이면 오른쪽 마진, 짝수쪽이면 왼쪽 마진에 위치한다.

한 행 안에서 새로운 절이 시작되면 그 절의 번호는 이미 찍힌 앞 절 번호보다 조금 내려서 위치해야 한다. (이것이 쉽지 않았다.) 만약 세번째 절도 같은 행에 놓이면 세 개의 번호를 나란히 식자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약간의 수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두 개까지는

아무튼지 패키지가 자동으로 처리한다. 절 번호가 제 위치를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컴파일을 두세 번 해야 한다.

## 운문과 산문

공동번역 성서는 운문(시)을 산문과 다른 형식으로 조판하고 있다. 원본 텍스트의 형식이라든지 그밖의 온라인 성경 본문 서비스 등을 살펴보니 실제 성서를 활용하는 종교인들은 이 운문과 산문의 구별을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조판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구분하여 조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Verse와 \endVerse라는 매크로를 마련하였다. \Verse가 놓이는 위치에 따라 절 번호가 찍히는 위치와 절 시작 표지가 달라지므로 필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
Gen 2;22 ...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Verse
Gen 2;23 ``드디어 나타났구나! \\  
| 내 뼈에서 나온 뼈요, \\  
|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  
|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  
| 지어미라고 부르리라!'' \endVerse
```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 오시자 아담은 이렇게 22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23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어미라고 부르리라!”

¶ 이리하여 남자는 아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 24  
었다.

입력 텍스트가 운문과 산문을 전혀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스를 주의깊게 수정하여야 했다. 행의 첫머리에 |를 둔 것은 해당 입력 소스의 행이 “영문자 권명과 장절 번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새로운 행으로 조판하라는 의미이다.

## 장의 조판

장 번호는 각 절의 맨처음에 제시된 장절 번호의 장 숫자가 현재까지 조판하고 있던 장 숫자와 달라지면 \lettrine으로 식자한다.

## 면주

공동번역 성서는 면주를 페이지의 상단에 두는데, 오른쪽 페이지(홀수면)는 페이지 번호를 왼쪽에, 그리고 권(Book)의 이름과 그 페이지 마지막 장절 표기를 오른쪽에 두고 있다. 왼쪽 페이지(짝수면)은 권명과 그 페이지의 첫 장절 표기를 왼쪽에 두고 페이지 번호를 오른쪽에 둔다.

일반적으로 페이지 번호를 recto의 오른쪽, verso의 왼쪽에 두는 것과 반대인데 이것은 보통 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특정 위치를 찾으려 할 때 페이지 번호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권명과 장절을 기준으로 찾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 면주의 모양을 구현하였다. 왼쪽 페이지의 시작 절과 오른쪽 페이지의 마지막 절을 색인하는 위치에 따라 약간 출입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략 의도대로 동작한다.

## 예외 처리

한 개의 절이 잘라져서 다른 문단으로 놓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부호를 추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창세기 2:4은 전반부가 1장의 P문서에서 이어지는 것이고 후반은 J문서에서 온 것으로 그 출처(기원)

이 다르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개역성경 등은 이 절을 하나로 처리하지만 공동번역 성서는 이것을 둘로 쪼개어 다른 이야기에 귀속시켰다.

Gen 2;4 하늘과 땅을 지어 내신 순서는 위와 같았다.

Gen 2;0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다] \* 야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

◦하늘과 땅을 지어 내신 순서는 위와 같았다.

4

###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다]

¶ 야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

절 번호 0은 절 번호를 식자하지 말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밖에 절 시작위치 표시를 생략한다든가 문단 들여쓰기를 하거나 하지 않는다든가, 예외상황을 위한 매크로를 몇 가지 준비하였다. 상세는 소스를 참고하라.

## 3 클래스 사용법

입력 텍스트를 제대로 구성하였다고 하자. 이 파일이 `Ruth.txt`라는 이름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tex` 파일을 만들어서 `XYTeX` 또는 `LuaTeX`으로 컴파일한다.

```
\documentclass{commontransbible}
\begin{document}
\MakeTitle{룯기}
\typeBible{Ruth.txt}
\end{document}
```

`\typeBible`은 파일 이름을 인자로 취하며 파일을 불러들여서 조판한다.

`typeText` 환경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
\setChcounter{3}
\begin{typeText}
Rut 3;9 ``너는 웬 여자냐?" 하고 물었다. ↵
    ``비녀는 /*룻*/입니다." 하고 /*룻*/이 대답했다. ↵
    ``어르신네께서는 이 몸을 맡아 주실 분이십니다. ↵
    그 옷자락으로 저의 몸을 덮어 주십시오."
Rut 3;10 ``악아, /*야훼*/께 복을 받아라." 하고 ↵
    /*보아즈*/는 말했다. ``너는 돈이 있든 없든 젊은 사람을 ↵
    따라 감직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까지 효성을 다하니, ↵
    이것은 지난날의 효성보다도 더 가룩하구나. \par
\end{typeText}
```

이 환경을 쓸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환경 맨 마지막 행의 끝에 `\par`를 붙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겹치는 절 번호”를 잘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typeText`가 아니라 `\typeBible`로 조판하는 것이 좋다. `typeText`는 이 해설 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setChcounter`는 장의 카운터를 설정한다. 이를 설정하지 않거나 이어지는 텍스트의 장절과 다르다면 장 번호를 식자할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입력례는 다음과 같이 조판된다. (위의 보기에서 ↵ 부호는 실제로는 행이 잘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각 절은 한 줄로 입력되어야 한다.)

- 9 ○“너는 웬 여자냐?” 하고 물었다. “비녀는 룻입니다.” 하고 룻이 대답했다. “어르신네께서는 이 몸을 맡아 주실 분이십니다. 그 옷자락으로 저의
- 10 몸을 덮어 주십시오.” ○“악아, 야훼께 복을 받아라.” 하고 보아즈는 말했



다. “너는 돈이 있든 없든 젊은 사람을 따라 감직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까지 효성을 다하니, 이것은 지난날의 효성보다도 더 가름하구나.

## 4 결론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스타일이지만 이미 있는 텍스트를 활용하여 조판하려 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었다.

다음에 「요한복음」의 한 장을 예시한다.

# 요한복음

## [말씀이 사람이 되시다]

1 **1** ¶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  
2 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은 한 처음, 천지가  
3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sup>㉔</sup>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  
4 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5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 본 적이 없다.

6 ¶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7 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8 하려고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  
9 다.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10 ¶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  
11 은 그분을 알아 보지 못하였다.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12 그분을 맞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 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13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다.

14 ¶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  
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충만하였다.

15 ¶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치기를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  
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sup>㉔</sup>3절과 4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 생겨났고 생겨난  
것 중에 그분 없이 생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라고 하였다.

¶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모세에 16  
게서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 17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안에 계신 외아들 18  
로서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 하느님을 알려 주셨다.

### [세례자 요한의 증언 (마태오3:1-12, 마르코1:7-8, 루가3:15-17)]

¶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사제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19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알아 보게 하였다. 이 때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해 주었 20  
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시오? 엘리야요?”하고 다시 묻자 요한은 21  
또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요?” 그들이  
다시 물었을 때 요한은 그도 아니라고 하였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22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하겠으니 당신이 누군지 좀 알려 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소?” 이렇게 다그쳐 묻자 ◦요한은 그제야 23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하고 대답하였다.

¶ 그들은 바리사이파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또 요한에게 24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 25  
여 세례를 베푸는 거요?”하고 물었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26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 따름이오. 그런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27  
이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오” ◦이것은 요한이 28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다니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 [하느님의 어린 양]

㉠이사야 40:3

29 ¶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한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  
 30 였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내  
 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31 두고 한 말이었다. ◦나도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32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 와 이분 위에  
 33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  
 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성령이 내려 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인 줄 알라고 말씀해  
 34 주셨다. ◦과연 나는 그 광경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의 첫번째 제자들 (마태오4:18-20,마르코 1:16-18,루가5:1-11)]**

35 ¶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곳에 서 있다가  
 36 ◦마침 예수께서 걸어 가시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  
 37 다”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갔다.  
 38 ◦예수께서는 뒤돌아 서서 그들이 따라 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라삐,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39 알고 싶습니다”하고 말하였다. (라삐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시자 그들은 따라 가서 예수께서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은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지냈다. 때는 네 시쯤이었다.

40 ¶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간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  
 41 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찾던 메  
 42 시아를 만났소”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가자 예수께서 시몬은 눈여겨 보시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앞으로는 너를 게파라 부르겠다”하고 말씀하셨다.

(게파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뜻이다.)

### [필립보와 나타나엘을 부르시다]

¶ 그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래아로 떠나 가시려던 참에 필립보를 만나 43  
 “나를 따라 오너라”하고 부르셨다. ◦필립보는 베싸이다 출신으로 안드레 44  
 아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다. ◦그가 나타나엘을 찾아 가서 “우리는 45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자렛 사람이오”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46  
 “나자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하고 물었다. 그래서 필  
 립보는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권하였다.

¶ 예수께서는 나타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47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하고 말씀하셨  
 다. ◦나타나엘이 예수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하고 물었다. “필립보가 48  
 너를 찾아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나타나엘은 “선생님,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49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네가 무화과나무 50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시고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너희는 하늘이 열려 있는 51  
 것과 ㉠하느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28:12